

· 자료제공 : 대구경북양돈농협 경영기획본부 / Tel.(053) 550-7808
· 내용문의 : 대구경북양돈농협 경영기획본부 김강민 계장 / Tel.(053) 550-7808
· 쪽 수 : 2P

☐ 첨부파일 ☒ 사진포함

대구경북양돈농협 '미나리·삼겹살 페스티벌' 성료

- ☐ 대구경북양돈농협(조합장 이상용)이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옛 두류정수사업소에서 진행한 '2026년 미삼페스티벌'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.
- ☐ 미삼페스티벌은 대구·경북 상생협력의 일환으로, 경북지역 양돈농가와 대구 미나리의 판로 구축 및 소비 촉진을 통해 대구·경북지역 농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소득 안정에 기여하여 도농상생을 실천하는 2019년부터 매년 이어져오는 대구 대표 지역축제이다.
- ☐ 행사에서는 대구경북양돈농협의 한돈브랜드 '올드림 한돈'에서 시중가보다 30% 저렴하게 제공하는 최상의 돈육과 팔공산 및 화원 미나리를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, 현장에 불판에 직접 구워먹을 수 있는 체험장소를 마련해 방문객들의 대구·경북지역의 대표 봄철 음식인 '미삼'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.
- ☐ 특히 행사 첫날에는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,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, 안병우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 등 농축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삼을 함께 즐겨 축제에 활기를 더했으며, 이번 축제에서는 3일간 4,500kg(8,500만원) 가량의 한돈을 판매해 지역민 사이에서의 미삼페스티벌의 인기를 증명하였다.
- ☐ 대구경북양돈농협 이상용 조합장은 “우리 지역 양돈농가에서 생산한 최상의 품질,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올드림 한돈과 대구 지역의 제철 미나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미삼페스티벌에 올해에도 어김없이 많이 와주시고 즐겨주셔서 무척 기쁘다”며 “지역축제를 통해 우리 지역 한돈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고, 나아가 미삼페스티벌이 대구·경북지역의 옥토버페스트처럼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▲ 가운데 김종구 농식품부차관, 사진 기준 왼쪽 대구경북양돈농협 이상용 조합장, 오른쪽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



▲ 가운데 농협축산경제 안병우 대표이사, 사진 기준 오른쪽 대구경북양돈농협 이상용 조합장



▲ 가운데 김종구 농식품부차관, 사진 기준 오른쪽 대구경북양돈농협 이상용 조합장, 왼쪽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



